

**시험 후기**

이번 7·8 서울시 시험은 이전 서울 시험 출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평이했고(물론 상대적이겠지만), 실용국어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실용국어 관련 문제도 평소에 많이 다룬 예측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었기에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은 답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소홀한 수험생들은 다소 헛갈렸을 것이다. 어찌됐든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많이 다뤄 본 문제가 출제되었기에 수업 적중률은 높았지만 그 말조차도 담기가 쑥스러운 문제 구성이었다.

아무쪼록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다음 제시된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통해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다음 한자의 바른 독음을 고르시오. (독음읽기 난이도 -중)**

嗅覺 杳然 恥辱 痛歎

- |                  |                  |
|------------------|------------------|
| ① 취각, 답연, 치욕, 통한 | ② 후각, 묘연, 치욕, 통탄 |
| ③ 취각, 답연, 후욕, 통한 | ④ 후각, 묘연, 굴욕, 통한 |
| ⑤ 취각, 묘연, 굴욕, 통한 |                  |

정답 ②

도우미 \*嗅覺(후각:냄새 맡을 후, 깨달을 각)  
 \*杳然(묘연:아득할 묘,그럴 연)  
 \*恥辱(치욕:부끄러울 치, 욕될 욕)  
 \*痛歎(통한: 아플 통, 탄식할 탄)

**2. 두보의 두시언해 중 절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학적인 글 난이도 - 하)**

江碧鳥逾白 ㉠마르미 푸르니 새 더욱 ㉡회오,  
 山青花欲然 ㉢되히 퍼러흐니 꽃 비치 불 붉는 듯도다.  
 今春看又過 ㉣웁보미 본던 쫘 지나가느니,  
 何日是歸年 ㉤어느 나리 이 도라갈 ㉥회오.

- ①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것이다
- ② 주된 정서는 애상이다
- ③ 체재는 봄 경치다
- ④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이다
- ⑤ 밑줄 친 ㉠은 현대국어로 '회고'이며 밑줄 친 ㉤은 현대국어로 '해인가'이다

정답 ④

도우미

1. 해제 : 작가 53세 때 성도(成都)에서 지은 실제작(失題作)
2. 주제 : 향수(鄉愁), 수구초심(首邱初心)
3. 시상 전개 : 선경후정(先景後情)
4. 판본 : 초간본(표기상의 근거 없음)
5. 어휘 이해 및 문법 정리
  - 새 : 새가-새+㉠주격
  - 회오 : 회고(白)-회(형용사 어간)+고(대등적 연결어미, '1'모음 아래서 'ㄱ'탈락)

- 붉는 : 기) 불다-8중성법 표기
- 웁보미 : 금년 봄이, 웁봄 : 올봄
- 어느 : 관형사  
 '어느'의 품사 통용
  - ① 어느 뒤 청하니→관형사('어느'의 뜻)
  - ② 聖人神力을 어느 다 술불리→부사('어찌'의 뜻)
  - ③ '어느 것'의 뜻일 때→대명사
- 회오 : 해(年)인가?-회(명사)+고(의문 조사)  
 의문형 어미 : 의문문에서 문장 가운데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가 있을 때 서술어의 종결 어미는 '고, 오, 노, 료' 등이 되고, 의문의 대명사나 부사가 없을 때는 '가, 아, 너, 러' 등이 쓰인다.
- ㉡ 어느 나리 이 도라갈 회오<두시 언해>  
 몇 間디 지뵈 사르시리잇고<용비어천가>  
 옛네 구퉁여 헤리오<두시 언해>  
 집 알퉁 몇 디월 드러노<두시 언해>  
 山行가 이서 하나빌 미드니잇가<용비어천가>  
 늙고 病커니 길홀 일터 아니흐려<두시 언해>  
 프른 거시 버들 숲가<어부사시사>

**3. 다음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난이도 -하)**

- ① 걷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 ②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
- ③ 우산을 받쳐 들고 길을 갔다
- ④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말았다
- ⑤ 술을 체에 받치고 있다.

정답 ② '넉넉지'

도우미 ② '무성음 + 하' 오면 '하'가 줄고 '유성음 + 하' 오면 모음 'ㅏ'가 준다.  
 간편하게 -> 간편케, 섭섭하지 -> 섭섭지

- ① 부딪히다: 부딪음을 당하다. 부딪다의 피동  
 부딪치다: 부딪다의 힘줄말. ㉠ 어제 대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쳤다.
- ③ 받치다: ㄱ. 우산이나 양산을 펴 들다.  
 ㄴ.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ㄷ. 모음 뒤에 자음을 달다.  
 받히다: ㄱ. 도매상 같은 데서 소매상에게 단골로 물품을 대어 주다.  
 ㄴ. 떠받음을 당하다.
- ④ 썩이다: 걱정·근심 따위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썩히다: '썩다'의 사동. 썩게 하다.
- ⑤ 받치다: '받다'의 힘줄말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따위에 부어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4. 다음 중 맞는 표기는? (한글 맞춤법 난이도 -하)**

내 친구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위고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 온갖 ㉡허드레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힘들어도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자 ㉣들던 대로 취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의기 소침해 있는 그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몹시 안타깝다 그 친구가 당당히 취업통지서를 들고 내게 달려와 축하주 한 잔 사주는게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③

도우미 ① 여의다: 죽어서 이별하다, 멀리 떠나보내다, 시집 보내다  
 \* 여위다 : 몸이 수척하여지고 파리하게 되다, 가난하여 살림이 보잘것없다.  
 ②허드렛일 ④들던 ⑤바람

5. 정철의 시조로 틀린 것은? (고전문학 난이도 -중)

재너머 성권룡 집의 술낙달 말 어제 듯고  
 누운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토고  
 아히야 네 권룡 겨시나 덩좌수(鄭座首) 왔다 흐여라

- ① ‘지즐고’는 놀러탄다는 뜻이다.
- ② ‘언치’는 안장 밑에 까는 담요를 뜻한다.
- ③ 전원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다.
- ④ 술과 멋을 좋아하는 작가의 품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
- ⑤ 세련되고 우아한 시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⑤

도우미 일상적 어휘를 통한 남성의 호방함은 나타나 있다.

현대역

고개 너머 성 권룡 집에 있는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쇼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만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주인 계시느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언치 : 안장 밑에 까는 털 행겔

6. 다음 중 발음이 바른 것은?

- ① 소년의 미소가 밝고[발꼬] 귀여웠다.
- ② 바야흐로 봄동산에 꽃이[꼬치] 만개하였다.
- ③ 발을 [바츨] 가는 황소의 몸이 무거워 보인다.
- ④ 한 시간 동안 벌을 서고 나니 무릎이[무르피] 저렸다.
- ⑤ 허수아비가 들녘에서[들러게서] 참새를 쫓고 있다.

정답 ①

도우미 ②[꼬치] ③[바츨] ④[무르피] ⑤[들러게서]

7. 다음 중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고려가요가 아닌 것은?

- ① 서경별곡      ② 이상곡      ③ 쌍화집
- ④ 만전춘      ⑤ 유구곡

정답 ⑤

도우미

내용	작품명	형식	출전	비고
망부석 사연	정읍사	비연시	악학궤범	현전 유일의 백제 가요, 신라 「지슬령곡」과 연관됨.
효심(孝心)	사모곡	비연시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곡조명 : 옛노리, 「목주가」와 연관됨.
	상저가	비연시	시용향악보	백결 선생의 ‘대악’의 후신, 방앗노래, 노동요
송도(頌禱)	동동	13연	악학궤범	월령체(달거리 형식)노래의 효시
	정석가	6연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만수무강 송축
축사(逐邪)	처용가	비연시	악학궤범, 악장가사	향가 「처용가」에서 발전한 희곡적 무가(巫歌)
현실 도피	청산별곡	8연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비에, 고독, 도피, 체념을 노래
이별의 정한(情恨)	가시리	4연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이별의 한(恨) 노래, 일명 「귀호곡」
	서경별곡	3연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강물, 뱃사공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극적 이별가
남녀상열지사	쌍화집	4연	악장가사, 시	만두가게

(男女相悅之詞)	만전춘	5연	용향악보 악장가사	시조의 형식을 보여줌.
	이상곡	비연시	악장가사, 시 용향악보	시적 자아가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님을 애타게 그리워함
애조(愛鳥)	유구곡	비연시	시용향악보	「벌곡조(伐谷鳥)」와 유사, 정치 풍자

8. 다음 작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문학사 난이도 -중)

- ① 이효석: ‘돈’ ‘산’ ‘메밀꽃 필 무렵’ 등을 통해
- ② 김유정: ‘금 따는 콩밭’, ‘땡볕’, ‘봄봄’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내었다.
- ③ 김동리: ‘무녀도’ ‘바위’ ‘황토기’
- ④ 김정환: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 ⑤ 계용묵: ‘백치 아다다’ ‘병풍에 그린 닭이’ ‘마부’

정답 ②

도우미 작품은 맞지만 작가의 작품 경향이 틀렸지요. 김유정 작품은 강원도 농촌을 배경으로 한 향토적, 토속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9. 다음의 속담과 한자가 관계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한자성어와 속담 - 난이도 -중)

- ① 티끌 모아 태산 -- 積土成山
- ②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貧則多事
- ③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甘呑苦吐
- ④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艱難辛苦
- 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 走馬加鞭

정답 ④

도우미 ① 적토성산(積土成山):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② 빈즉다사(貧則多事): 가난한 집안에 번거로운 일이 많아서 바쁨.  
 ③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  
 ④ 간난신고(艱難辛苦): 갖은 고초를 다 겪음.  
 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으로, 정진하는 사람을 한층 더 권장함을 이르는 말.

10. 아래 표기법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글 맞춤법 난이도 -중)

- ① 금새 짜증이 났다.
- ② 그의 행동에 어의없다.
- ③ 이 점을 엮두해 두고 행동하십시오.
- ④ 간이 안 맞으니 한 울큼 소금을 넣으시오.
- ⑤ 그 사람 표정이 정말 희안했다.

정답 ④

도우미 ①금새 \* 금새: 물건 값의 시세  
 ②어이없다. ③엮두에 두고 ⑤희한했다.

11. 기미선언서 아래 <보기> 문장 중에서 주제어구를 바르게 찾은 것은? (독해 난이도 - 중)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強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여 有史以來(유사 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通告(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無(무)릇 幾何(기하)이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장애됨이 無(무)릇 幾何(기하)이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毀損(훼손)됨이 無(무)릇 幾何(기하)이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 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 보비)할 機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無(무)릇 幾何(기하)이요.

- ① 구시대의 유물                      ② 이민족 겸제의 통고
- ③ 생존권의 박상됨                  ④ 민족적 존영의 훼손
- ⑤ 기연을 유실함

정답 ②

도우미 주어진 단락은 주지(구시대~과한지라)와 예시(아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기하)이다. 따라서 주지 단락에서 주제를 찾으면 이민족 겸제의 고통이다.

1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은? (로마자 표기법 난이도 -하)

- ① Myeongnyun-dong, Jongno-gu, Seoul, Korea
- ② Myeongnyun Dong, Jongno-gu, Seoul, Korea
- ③ Myeongryun-dong, Jongro-gu, Seoul, Korea
- ④ Myeongryun Dong, Jongro-gu, Seoul, Korea
- ⑤ Myeongryun-dong, Jongro-gu, Seoul, Korea

정답 ①

13.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통합식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국어지식 난이도 - 하)

- ① 액자소설                      ② 역사소설                      ③ 피카레스크 소설
- ④ 1인칭 소설                    ⑤ 대화체 소설

정답 ①

14. 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비평적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문학 일반 난이도 - 하)

<보기> 이 시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젊고 어여쁜 여성의 번뇌 위에 종교적 지향성을 포괄으로써 번뇌의 종교적 극복과 지양이라는 주제를 밀도 있게 제시하려는 시인의 내면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 ① 반영론                      ② 표현론                      ③ 효용론
- ④ 객관론                      ⑤ 형태론

정답 ②

도우미 이 시는 ~ 시인의 내면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작가의 의도 중시)

유형	내용	문학이해접근방법
표현론	작품을 작가의 체험·사상·감정의 소산으로 파악, 작가 중심의 입장(생산론)	외재적 접근 방법(역사주

반영론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보는 입장(모방론)	의 방법)
효용론	작품의 가치를 독자에게 미친 효과로 판단. 독자 중심의 입장(수용론)	
절대론	작품을 독립된 자족적 세계로 보는 입장. 언어와 구조 분석 중시(구조론)	내재적 접근 방법(구조주의, 형식주의, 신비평, 분석비평)

15. 다음 글을 읽었을 때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성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한자성어 난이도 - 중)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려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 박지원, <허생전> 중

- ① ㉠: 허장성세(虛張聲勢)                      ② ㉡: 교언영색(巧言令色)
- ③ ㉢: 자신만만(自信滿滿)                      ④ ㉣: 안분지족(安分知足)
- ⑤ ㉤: 수주대토(守株待兔)

정답 ⑤

도우미 밑줄 친 ㉤은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수주대토(守株待兔)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김남조의 “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대시 난이도 -중)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① 새해라는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새해의 눈시울과 승천한 눈물은 대구를 이루고 있다.
- ③ 백설은 눈물의 결정체이다.
- ④ 순수 얼음꽃은 백설과 의미가 동일하다.
- ⑤ 새해를 맞이하는데 눈이 내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답 ⑤

도우미 ① 새해라는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마음의 다짐으로 이끌고 있어 새해의 개념을 시적으로 형상화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관형어 + 명사’라는 통사적 구조가 같아 대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새해의 눈시울,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이 백설을 담고 온다.  
이들 시어는 모두 ‘순수’를 의미한다.  
③, ④ 눈시울 -> 승천한 눈물 -> 순수의 얼음꽃-> 백설로 이미 거리를 형성한다.

- ⑤ 시는 시적 의미를 두고 풀어야 한다. ‘설일(雪日)’을 한자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설’에서는 음을 ‘일’에서는 훈을 따오면 설날이 되고, 또 하나는 ‘눈 내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눈’이 단순한 눈이 아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초점화된 주제 시어이므로 적어도 ⑤번 같이 해석하는 것은 시적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

김남조 ‘설일’ 이해

- 갈래 : 서정시, 종교시
- 성격 : 종교적, 교훈적, 상징적
- 체재 : 나뭇가지, 바람, 눈
- 어조 : 경건하고 겸손한 어조
- 주제 : 너그럽고 감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자.
- 표현상 특징
  - 1연과 2연의 연쇄에 의한 연결
  - 2연의 단정적 진술
  - 3연의 대구에 의한 표현
- 작품 이해 : 이 작품은 일상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절대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 ‘황송한 축연’등의 시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7. 다음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현대문법 - 난이도 하)

- ① 여닫다                      ② 드높다                      ③ 낮추다
- ④ 휘감다                      ⑤ 사랑스럽다

정답 ①

- 도우미 ① 합성어- ‘열고 닫다 = 여닫다’  
 ② 접두 파생어 (드+ 높다)  
 ③ 접미 파생어 (낮+ 추+ 다)  
 ④ 접두 파생어 (휘-감다)  
 ⑤ 접미 파생어 (사랑 -스럽다)

18.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한글 맞춤법 난이도 -상)

- ① 아이들은 어떤 고난도 참아 냐다.
- ② 다음에서 틀린 것을 찾아 보아라.
- ③ 새로 알게 된 사항을 수첩에 적어 놓았다.
- ④ 오늘 목격한 장면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본 대로 말해 주길 부탁한다.
- ⑤ 아이들이 떠들어 대고 있다.

정답 ②

도우미 ‘찾아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단어로는 ‘찾아뵙다’, ‘찾아오다’, ‘찾아가다’ ‘찾아들다’, ‘찾아다니다’ 등 그 밖의 것은 띄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아래 문장에 각각 들어갈 한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자어휘 난이도 - 중)

- ① 현대 국어의 어휘사용에 있어서 큰 ( )를 차지한다.
- ② 여러가지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 )
- ③ 원 뜻을 살려서 ( )를 만들어 쓰는 것도 신어 증가의 한 요인이다.

- ①比重, 開閉, 意譯語                      ②比重, 改廢, 意譯語
- ③批重, 改廢, 疑驛語                      ④批重, 開閉, 義譯語
- ⑤秘重, 開閉, 義譯語

정답 ②

- 도우미 ① 비중(比重)(견줄 비, 무거운 중): 다른 사물과 비교할 때 중요성의 정도  
 ② 개폐(고칠 개, 폐할 폐): 고치거나 없애 버림.  
 ③ 의역어(意譯語)(뜻 의, 통역할 역, 말씀 어): 개개의 단어·구절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는 번역

20.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살갱이                      ② 장사치                      ③ 수캉아지
- ④ 어질머리                      ⑤ 시러베아들

정답 ④

도우미 ‘어질병’의 잘못